

춘천 영남농원을 찾아



서울에서 그리고 각 지방에서 양계인은 바쁘다.

그러나 개미처럼 일해서 버는 수확은 값진 것이며 또한 적당한 양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는 생산과 판매, 지역사 회의 양계인의 협동에 의욕적인 춘천의 한씨 상씨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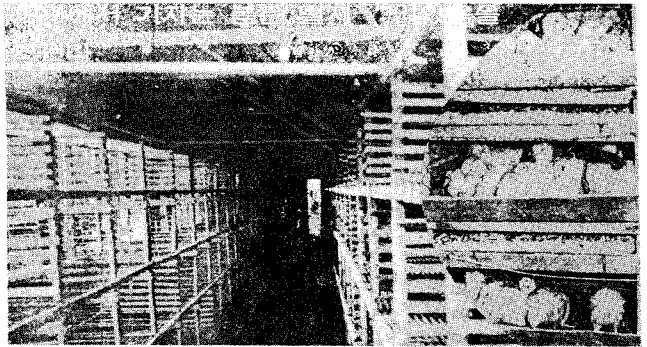
← 영남농원 정문에 선 한씨 부자.



과수원에 둘러싸인 한씨의 계사 전경.

오늘을 마감하는 듯이 계사를 내려다보는 한씨는 이 언덕에서 웨딩·마치를 올렸단다.

내년 봄을 위해 깨끗이 수리해 놓은 바타리 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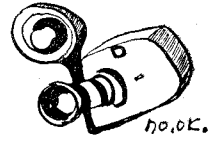


한씨의 부모일러는 모두 이곳 치킨센터에서 자가 소비된다.



한씨의 모...는 유양. 이 유양은 한씨 일가의 영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울러 그들의 독립정신의 마스코트이기도 하다.

포 판 야 권



한 의 상 씨

아름다운 경춘가도를 달리기 2시간 반—옆자리의 아가씨때문에
재대로 즐지 못해 억지감상을 한 셈이나 결국 북한강과 춘천
의 의암댐. 이디오피아의 참전기념비, 그리고 젊은 의욕
에 넘치는 양계인의 통닭집.

오랫만의 나들이에서 기자만의 흐뭇한 정(情)을 독
자와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지나친 욕
심일까? _____

아침에는 자옥한 안개—그리고 청명한.

난생 처음 밟아본 춘천시. 그러나 어쩐지 낮
짙지 않은 도시란 느낌이 드는 도시이다.

조양동 55번지에 자리잡은 종로치킨센터. 이
곳이 한익상씨가 자가생산하는 부로일터를 가공
하여 판매하는 곳이라 한다.

이곳에서 좀 기다려 꿩고 작달막한(?) 그러
나 의지로 뽄뽄 뚱쳐 버린듯한 한익상씨와 그의
부인을 만날수 있었다. 치킨센터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우선 성급한 발길을 농장으로 옮겨본다.

아침에는 자옥한 안개라지만 현재는 너무나
맑은 가을 날씨이다.

3000수의 산란계로 시작하여 현재 6배로

68년 군에서 제대한 후 3개월간 무슨일을 할
까 곰곰이 생각하여 시작한 것이 겨우 양계라고
피식 웃는 웃음에서 씨의 겸손만은 아닌 무엇을
느끼게 한다. 대충 돌아본 농장의 규모가 특별
히 크대거나 무슨 특수한 사육방법을 연구채택
한것은 없는듯 하나 농대를 졸업한 인텔리로서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한익상씨는
1965년도에 서울 농대 농학과를 졸업한 5남 2녀

중의 장남이라 한다.

양계는 1969년 1월에 부로일터 3,000수로 시작
하여 현재 부로일터 15,000수 채란계 2,000수의
규모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료를 자가배합하였으나
배합의 곤란, 시간의 절약, 경제성 문제등에서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국내배합
사료의 품질도 이제는 정상계도에 오른것 같다
고 말한다.

부로일터는 모두 바타리식으로 육성하고 있으
며 배합사료로만 사육하고 있다고 한다. 절등은
중야집등방식.

채란계는 모두 케이지 사육이며 내년 2월에 폐
계처분할것이기 때문에 20시간 절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5%의 산란율. 특기할점은 메치오
닌을 산란계에 0.2% 첨가하고 있다는 점이겠다.
그러나 메치오닌은 워낙 고가이고 배합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것 같았다. 그리고 5년전부
터 체분과 돼지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메탄가스
를 생성시켜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람직한 한국의 농민상을 본다.

한익상씨의 부친께서는 해방후부터 7,000명

의 과수원을 가꾸어 온 농민.

부친의 영향을 받아 농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독립하려는 의욕을 아울러 이에 받았다고 한다.

「생산자로서의 자부심, 청운의 꿈, 아울러 안정된 생활, 이 모두를 나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학교와 군대에서 무척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양계업중 부로일터를 하기로 제대후 3개월 동안 실직에 결심하게 된것이죠.」 남다른 독립심으로 집의 보조를 받지 않고 사채 3백만원을 얻어 시작하여 운도 있었지만 상당히 성장하게 된 것 같기도 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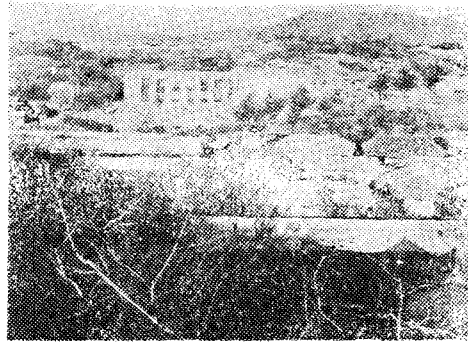
「부로일터는 세미부로를 우수한 늬를 골라서 사육하고 있는데 하이부로종에 비해서 별로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코니쉬숫늬에 왜텐이나 유색하이라인을 교배한 것과 유색하이라인에 인디안리버종을 교배한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병문제나 기타 사육중 느낀 애로점에 대하여는 「배합사료공장에서 가급적이면 원료변동을 자주 하지 말아 스트레스의 한 원인을 제거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올해 6월에 산란계 600수를 2개월경에 전멸시킨 경험이 있는데 부화장이나 사료업자의 기술지도와 자체 관리철저등의 배려가 아쉽습니다.」

..... 만약 500수 규모의 양계를 시작하신다면?

짧은 경험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대답을 할수없다고 버티던 한씨는 「의람된 말씀 같아서 하기가 거북하지만 그대로 뼈아프게 느꼈던 점을 몇말씀 드려보죠. 우선 소규모로 처음 양계를 시작한다면 우선 충분한 사전의 준비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부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계화해서 자본의 회전, 운영상태등을 항상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용있는 사료메이커의 제품을 100%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양계인이 신용못하고 자가배합을 하는데 배합사료는 변함없는 사료공급의 곤란, 성분변이 특히 수분함량등의 진폭이커서 항상 탐은 스트레스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계사의 환경위생과 방역대책을 귀찮더라도 어김없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장 전경〉

기자가 보기에 적어도 양계업에서는 크게 실패한 경험이 없는것 같은데 굳이 자기의 실패담을 이야기 하겠단다.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곤란을 당했었죠. 판매상이나 동업인의 양심을 믿고 여러모로 똥치려 했으나 번번히 배신을 당해 많은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점이 젊은 혈기로 되지 않는 일이라 하겠지만 어려운 매일수록 자자의 양심은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선도적역활을 하기를 싫어하고 장부정리에 태만하여 많은 손실을 안겨왔던 것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탈썸은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고 전진하기 위한 자세를 위해 닦는 좌우명일것 같다.

철저한 생산과 관리. 한익상씨의 책상에는 그의 부로일터의 사료섭취량 증체량을 통제하여 경제성을 따져본 표가 붙어있었다.

..... 독립정신으로 오늘을 뛰는 한씨가족

오늘 탐방의 주목적인 생산물판매와 한씨 일가의 독립정신에 카메라와 기자의 초점을 잡는다.

5남2녀를 거느리고 있는 한익상씨의 부친이 경영하는 과수원과 한익상씨의 양계장, 그리고 금년 5월 부로일터업계의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린 치킨센터, 치킨센터는 한씨의 부인이 직접 경영한다.

어머니는 유양(乳羊)을 5마리 사육하며, 농고 재학중인 막내동생은 얼마전에 돼지 20두를 사육하여 처분하고 지금 3마리를 기르고 있다. 모든 가족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독립체산으로 자기의 말